

“독재 타도!” 무대 오른 그날의 함성



“전두환 물러가라”를 외치며 쫓아가는 광주 시민들의 모습.

“엄마, 오늘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계란 몇 개 던지는 일이었어요”

지난 16일 극단 토박이가 동구 민들레소극장에서 펼친 연극 ‘금희의 오월’은 뜨거운 오월 들불을 다시 지피는 시간이었다. 고(古) 이정연 열사의 일화를 최초로 극화한 작품인데, 극단 토박이 창단 40주년을 맞아 선보인 작품으로 동구 인문도시 기록화 사업과도 맞물려 있다.

토박이는 마당극단 ‘광대’를 창단한 박효선이 주축이 돼 1983년 만든 극단이다. 그동안 5·18 등 지역사를 소재 삼아 지역민의 애환을 담은 창작극 중심 연극문화를 펼쳐왔으며, 40년간 광주에서 ‘오! 금남식당’, 오월 연극 ‘버스킹 버스’ 등 다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이날 선보인 작품 ‘금희의 오월’을 창작한 박효선은 전남대 연극반을 중심으로 극활동에 몰두해 왔다. 지역 현실을 예술을 통해 되묻는 작품을 만들어 사회적 관심과 반향을 동시에 받아 온 극작가이며, 극단 토박이의 뿌리가 됐다. 광주 민중항쟁과 그 정신을 담은 ‘돼지풀이’, ‘모란꽃’ 등을 통해 지역민의 아픔을 위무해 왔으며 1998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극단 토박이 연극 ‘금희의 오월’고 이정연 열사 일화 모티브로 극화 계엄군 학살 등 80년 5월 비극 초점 청년 세대 ‘5·18’ 아픔 간접 경험 배우들 외침에 항쟁 의미 되새겨

공연은 80년 5월 비극을 조점화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매캐한 최루탄 연기가 가득한 거리 그리고 울먹거리는 시민들. 계엄령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전남대 일대에 계엄군이 즐비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금희 오빠 ‘정연’도 아직 귀가하지 않았기에 걱정스러워 한다.

“엄마, 지금 친구들이 공수대원 몽둥이에 맞아 죽어가고 있어요”

찢어진 옷으로 한밤 중 돌아온 정연은 데모 현장의 참상을 풀어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듣는 얘기로는 광주역, 계림역, 학동, 유동을 가리지 않고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

“전라도 깡다구가 있제, 부아가 치밀어 못 살겠

구만”
젊은 임산부까지 죽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 정연과 시민들은 민중 쫓아기를 준비하지만, 공수 대원들이 나타나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몰아세우며 학살한다. 작품은 이 같은 참상을 금희가 회고하며 읊조리는 방식으로 풀어내는데, 실감나는 연기가 어우러지면서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극 중에서는 리어카에 탄 채 태극기를 흔들며 “독재 타도 군부 철폐”를 부르짖던 그날의 함성도 재현됐다. 관객들은 배우들이 목 놓아 울부짖는 함성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그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 작품은 5월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후속세대로 하여금 그날의 상흔과 아픔을 간접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깊은 울림을 준다.

무대에서 재현된 금희의 오월은 꽃피는 봄날은 아니었다. 많은 이들의 송고한 희생은 대동 세상을 향한 희망이자 오늘날에도 여전히 억압받는 이들을 향한 희망의 함성으로 다가왔다. 나아가 민주가 꽃 피는 세상에 대한 민주열사들의 열망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인문학으로 인문 가치 재발견

인문지행 ‘빛고을 인문의 숲’ 10월6일~11월11일

‘광주문학의 빛나는 고전들’, ‘영화로 만나는 인문학 향연’, ‘시 정원 속 아모르파티’…

다채로운 인문학을 통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광주 미래의 길을 모색하는 인문학의 향연이 펼쳐진다. (사)인문지행이 진행하는 ‘빛고을 인문의 숲’이 그것.

이번 빛고을 인문의 숲은 광주 미래가치를 일상에서 구현하는 인문학적 장을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는 10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이며 영화, 시, 역사 등을 모티브로 진행된다.

먼저 인문강좌는 모두 6회(오후 6시30분) 진행된다. 첫번째 시간(10월 14일)은 광주극장에서 영화감독 오재형이 영화를 매개로 인문학을 이야기한다. 광주에서 태어나 성장한 오 감독은 광주의 곳곳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10월 13일과 20일에는 광주극장에서 기억해야 할 광주의 빛나는 고전들을 만나는 시간이다. 광주의 곳곳에서 그 흔적과 기록을 만날 수 있는 이철준 작가와 송기숙 작가에 대한 재발견을 위한 강좌로 이철준 작가에 대한 강의는 한순미 교수(조선대)가, 송기숙 작가에 대한 강의는 김형중 교수(조선대)가 맡는다.

10월 27일에는 ‘도시 정원 속 인문소풍-아모르파티’가 푸른마을공동체센터 소공원에서 야외행사로 진행된다. ‘자신의 삶을 사랑할 것’이라는 의

미를 가진 ‘아모르파티’는 축제와 소풍 형식으로 운영되며 참여자 모두가 시민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 작은 음악회가 곁들여지며 진행은 심옥숙 박사(인문지행 대표)가 맡는다.

‘시민들의 시(詩)적 만남’을 주제로 한 강좌도 있다. 11월 3일에는 양림동의 김현승 시인과 릴케의 시적 관계를 알아보고, 10일에는 영화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를 매개로 삶의 의미와 불안한 삶에 대처하는 모습을 주제로 ‘빛고을 인문의 숲’ 인문강좌를 마무리한다. 심옥숙 박사가 강사로 나서며 장소는 인문지행 강의실(책방 심가네박씨, 동명로67번길 22-2)이다.

‘빛고을 인문의 숲’ 인문답사도 세차례 진행된다. 10월 14일 답사 장소는 화순 유희비와 고인돌 유적지이며 김태완 박사가 ‘문명과 문화 사이에서’를 주제로 현장에서 강의한다. 11월 4일에는 고창 탐사도 습지를 탐방해 생명의 순환과 작은 것의 큰 힘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공유한다. 세 번째 답사는 11월 11일 ‘남도 역사와 문화의 길 위에 서다’를 주제로 오래된 남도의 문화와 예술의 흔적을 찾아간다. 박일규 사진작가가 역사적 의미와 사진으로 발견하는 문화의 미학을 이야기한다.

광주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 무료.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사단법인 인문지행’ 홈페이지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전남 클래식 예술인재 4명 발굴

‘음악콩쿠르’ 첫 광주 대회 성료…11월4일 광주·25일 순천시 개최



예술인재 음악콩쿠르 참가 학생이 노래하고 있는 모습.

(광주예인 제공)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클래식 예술인재의 등용문 역할을 맡고 있는 전국규모 콩쿠르가 펼쳐지고 있다.

YEIN COMPETITION 광주전남지부(이하 광주예인)가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는 ‘예술인재 음악콩쿠르’ 첫 광주 대회가 지난 16일 오전 광주디자인진흥원 이벤트홀에서 성료했다. 콩쿠르는 지난달 평택대회를 비롯해 지난 2일 부천, 16일 일산, 9일 순천 등지에서 진행해 왔으며 다음 대회는 오는 11월 4일 광주디자인진흥원(이벤트홀)과 25일 순천문화회관 개최가 예정돼 있다.

경연은 피아노 솔로와 피아노 듀오(포핸드), 현악, 관악, 성악, 실용클래식 등 부문에서 유치부부터 대학부(일반부)까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학년별 대상 4명(성악 유치부 1명, 관현악 1명, 피아노 초등, 중등 각 1명)을 선발했으며, 개별 학생마다 심사평을 제공해 장단점을 알려줬다는 점에서 경연의 차별점이 있다. 모든 연주곡은 암보로 연주.

입상자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한다. 준대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연말결선 참가자격이 부여되며, 트로피를 제공한다. 참가 신청 및 문의. 010-5519-0948.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가을낫 시민과 시산문음악 한마당

광주전남작가회의의 23일 풍암호수공원

가을의 한낫, 시민과 함께하는 시산문음악 한마당이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정양주)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시민과 함께하는 시산문음악한마당’을 풍암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한다. 광주전남작가회의가 주최하고, 광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프

로그램은 문학의 다양한 장르와 함께하는 낭송, 공연 위주로 펼쳐지며 일반 시민들과 함께 문학을 향유하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먼저 한중근 시인의 ‘레전드 팔 월 이십사 일’, 강희정 시인의 ‘조용한 시간’, 한경숙 시인의 ‘그립자’ 시낭송이 이어진다. 이어 김현주 소설가의

‘해금 명인 유우춘’, 김만성 소설가의 ‘골드’ 소설 낭독, 동화작가 최현주의 ‘돌개바람이 휘몰아치고’ 낭독이 진행된다.

또한 푸른솔합창단의 ‘솔아 푸르른 솔아’, ‘아름다운 나라’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정양주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은 “이번 시산문음악한마당은 문학을 모티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며 “일반 시민들과 함께 문학을 향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